

성도의 벗 9  
1982



1

14

42

30

# 성도의 벗 9 1982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대판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엘 엘론 태너  
메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퉁클리

###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클기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던  
렉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회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वाद/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	1
비판에서 개종으로.....	조셉 더블류 다링.....	10
여러분의 아내가		
교회의 부름을 받을 때 .....	제랄드 알 쉬퍼.....	11
그분은 나를 도우러 오셨다.....	자넷 피터슨.....	14
그룹 전도 .....	로버트 엘 햄브린.....	16
로라의 후원자 .....	새라 이 힌즈.....	24
사랑이 열쇠였다.....	제인 레일리 로빈슨.....	28
내가 실수하더라도 용서해라 .....	테라 우다드 판스위스.....	30
나히드와 귀중한 비밀 .....	던 애세이.....	33
예기치 못한 수확 .....	글래디스 시 파머.....	36
조셉 필딩 스미스 .....		40
친구가 친구에게 .....	줄런 메레디스.....	42
지역 지도자 메시지 .....	민 헤기 부산 스테이크 부장.....	45
지역 소식 .....		47
지역 소식 .....		49

통 권 : 제206호, 제18권 제9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2년 9월 1일(월간지) 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93KO PRINTED IN SEOUL, KOREA 9/82 International magazine

© 1982년  
제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 : 42-43)

개인의 온전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에 의한 자비가 없다면 죄를 씻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인간은 죄를 깨끗이 씻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관한 구세주의 큰 역할에 관해서 힐라맨은 베냐민 왕의 말씀을 들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가 오시어 세상을 구속하시리라라는 것을 기억하라.” (힐라맨서 5 : 9)

또한 앰울레크가 지에즈룸에게 한 말을 회상하여 힐라맨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얻어야 할 인간의 본분에 관하여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저가 이르기를, 진실로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구속하려 오시되 죄와 함께 구속하심이 아니요, 죄로부터 구속하시리라 하고 하셨느니라.

“또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이들을 구속할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지라.....”(힐라맨서 5 : 10-11)

이와 같은 경전의 말씀은 죄지은 자의 영혼에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소망이란 회개를 받게 해주는 큰 자극제로, 이것 없이는, 특히 죄가 크고 무거운 것

일 때,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사는 어느 젊은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간음했노라고 내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고집이 세고 쉽게 양보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결국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잘 알아요. 저는 성경도 읽었고, 그래서 그 결과도 알고 있어요. 저는 저주를 받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 지금 회개하려고 노력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께서는 경전을 모르시는군요. 또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선하심도 모르고 계시군요. 자매님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가 따라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고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 : 15)

나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용서받게 된다(교성 1 : 32 참조)는 이 경전의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믿고 싶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진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결국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으며 여전히 아직은 의심스러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몹시도 믿고 싶어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간음을 용서받지 못할 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경전을 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꾀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꾀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 31-32)

그녀는 경전의 말씀을 읽고 있었읍니다. 그녀의 눈은 빛났읍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첫째 요전이라는 것을 아는 나는 그녀에게 계속 경전을 읽어 주었으며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소망을 굳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그 기쁨이야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마 6:14)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그의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42) 우리 주님께서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렘 31:34) 얼마나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그녀의 마음을 일깨워 주자 본래 착한 이 여인은 나의 눈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힘과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어린 양의 피로 저의 더러운 옷을 씻고 용서를 받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녀는 밝은 눈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희망에 찬 모습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 나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소망의 별을 보고 이를 응시하던 그 뜻깊은 날로부터 그녀는 간음이란 두 글자를 멀리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무겁더라도 주님께서서는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사랑하심이 분명합니다. (교성 1:31 참조) 죄를 범한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끝내는 온전한 회개로까지 이끌어 주는 성구는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

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받았던 빛마저 빼앗기리니,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1 : 32—33)

교회의 표준 경전에 기록된 이와 같은 계명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교성 1 : 2)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죄를 회개하라는 권고는 교회의 회원이나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약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웃음 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회개가 구원과 승영의 기회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죄의식 때문에 회개하려는 사람이 죄의 추악함이나 가증함을 보고는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심히 낙담하고 자기의 무력함을 느껴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한다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막 2 : 5)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마음속에 메아리칠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를 쓰러뜨리기보다는 일으켜 세우시고 살도록 도우시지 영적인 사랑을 안겨다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죽

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겔 18 : 32)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36년 커틀랜드 신전 헌납식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에서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다는 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사오니, 당신의 백성의 범법을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이를 지워 없애 주옵소서.”(교성 109 : 34) 용서의 과정에서 죄가 지워 없어진다는 생각은 주님의 다음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 : 25)

구세주께서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위대함이라”(니삼 23 : 1)고 말씀하셨으며, 그 예언자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주어진다는 약속을 말해 주는 다음의 유명한 구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제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 : 6—7)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용서에 대한 이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영예로우며 또 그 자비와 용서는 얼마나 큼니까? 인간이 더 이상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

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 : 18)

성적인 죄나 간음에 대해 많은 예언자들이 심히 염려해 왔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용서가 주어진다든 뜻의 다른 여러 성구를 주셨습니다. 그 외의 성구에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할 때 용서가 주어진다든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다른 예언자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간략하게 주요 부분만을 기록해 보기로 합시다.

“간음하였으나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완전히 손을 떼어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면 내어 쫓기지 아니하리라.” (교성 42 : 25)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58 : 42)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너희 죄도 사할 수 있음이니라.” (교성 60 : 7)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로서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나 주가 그 죄를 용서하여 주나니” (교성 64 : 7)

“.....그러나 저들이.....악을 회개하였으니, 용서받으리라.” (교성 64 : 17)

“.....내가 정결한 것같이 저들도 정결케 될 것임이니라.” (교성 35 : 21)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 : 34)

“내가 네 허물을 백백한 구름의 사라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기억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 : 32)

짐같이.....도말하였으니.....” (이사야 44 : 22)

“.....만일 누가 너와 내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내가 또한 그를 용서하리로다.” (모사이야서 26 : 29)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 : 17)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지 일 년 만에 구속주께서는 불경과 음욕의 가증한 죄와 이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하는 자라. 영을 지니지 못하리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어 쫓기리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

“간음하였으나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완전히 손을 떼어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면 내어 쫓기지 아니하리라.” (교성 42 : 23—25)

성령을 거스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2:31 참조) 요셉 스미스는 이 구절에 “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라는 말을 첨가하여 영감역을 만들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죄와 꾀방은 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되거나 성령을 꾀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2:26)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55년 7월호, 542페이지) 이 말씀은 같은 주제에 관한 성구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이 말은 다음의 엘마의 말씀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저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함이라.....사람들의 옷이 씻겨져 정결케 되어야 하리라.”(엘 5:21)

이와 같이 제언하는 의도는 가증스러운 성적인 죄악이나 기타 범법을 가볍게 보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범법자에게 희망을 주어 죄를 멀리 하고 어린양의 피로써 스스로를 깨끗이 씻고 그들의 창조주에게로 되돌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함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적인 죄를 범한다는 것 특히 간음을 범한다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에게 전한 바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6:9-10)

그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히 왕국은 바울이 일했던 교회의 지부에서 본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왕국이 간음자, 사통자, 우상 숭배자, 성적 이상자, 도적, 탐욕자, 주정꾼, 거짓말장이, 반항, 비난, 왜곡을 일삼는 자들로 채워진다면 영광이나 명예나 권세나 기쁨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잘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안을 안겨다 줍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린도전서 6:11)

이것이야말로 큰 비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중에는 그러한 가증한 죄를 범했으나 그러한 범주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죄를 깨끗이 씻어 정정당당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가증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정화되고 변화되는 힘을 지닌 복음을 받아들여 온전히 개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죄를 씻는 정화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깨끗하게 되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승영을 얻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더러운 심령을 지녔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그의 습관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깨끗해지며, 그의 태도가 고양되고, 활동에 질서가 잡히고, 그에 관해서 더러웠던 모든 것이 깨끗이 씻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다른 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흙이 묻어 더러워진 옷은 세탁해서 다림질하면 전혀 깨끗해집니다. 천연두를 한 번 앓게 되면 다시는 이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도덕적인 면에도 면역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병폐나 신체상의 질병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병은 감염으로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오게 되며,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앓아가게 됩니다. 전자는 일신상의 순간적인 결과만을 안겨 주나 후자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깨끗이 씻고 정화된 사람은 더 이상 간음자가 아닙니다. 깨끗이 씻는 정화 과정은 이미 여러 번, 여러 곳에서, 여러 예언자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후의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괴로웠던 영혼이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흙이 묻은 옷이 깨끗해집니다. 전에 더러웠던 인간이 회개를 통해 깨끗해지고 정화되면 계속 신진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몇몇이 설 수 있게 됩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상처만큼 봉대도 커야 합니다. 금식, 기도, 겸손이 죄값과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따라야 합니

다. 크게 애통해야 하며 비탄에 잠겨야 합니다. 눈물과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악을 버리며 주님의 합당한 종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보상을 해야 하며, 방향과 목표의 확고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상대자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되도록 옷을 빨아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생활하겠다는 새로운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자아와 죄와 세상적인 일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깊은 회개가 따를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자비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예언자 엘마는 회개가 죄를 씻어 주고 기쁨이 인간을 안식과 승영에까지 이끌어 주게 하는 정화의 힘을 통한 주님의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이 거룩한 신권의 부름을 받아 성별되었고 어린양의 피로 저들의 옷은 깨끗하게 씻겨졌느니라.

“저들이 성신으로 성별되고 옷이 깨끗하게 씻겨진 후 하나님 앞에 더없이 순결하게 되어 죄를 미워하였으며, 실로 정결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저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였으며”(엘마서 13:11-12).

이 성구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성결함에 이르는 기본적인 태도를 말해 주며 용서를 낳는 회개를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한 번 죄를 범한 사람은 다시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그가 범한 죄를 버릴 뿐만 아

나라 이를 철저히 경계하여 그러한 죄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겨 그러한 죄를 범하겠다는 생각이 그의 생활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구절은 주님께서 1832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 즉 천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 (교성 88 : 68)

또다시 1833년에 예언자는 온전히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뜻하는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교리와 성약 93 : 1)

이노스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진실로 회개했을 때 이노스의 상태는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기를, 이노스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로다 하시니라.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이노스서 1 : 5—6)

이처럼 관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왜 세상의 악을 버리고 주님께 나가기를 주저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경이와 감사함을 표시하나, 용서를 가볍게 여기거나 회개한 후 죄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용서하시나 죄를 되풀이할 때는 참지 않으십니다.

“주가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형제들과 저들의 죄를 각각 용서하려니와 다시는 죄짓지 말지니, 나의 영이 항상 인간들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는 줄을 너희가 기억할지니라. 너희가 죄를 범하여 마침내 죄로 무르익게 될진대 주의 면전에서 쫓겨 나리로다…… (이더서 2 : 15)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범법자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또 하나의 잘못된은 그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를 하였으므로 좀더 강해졌다고 느끼는 망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죄없이 살아갈 사람은 아무리 깊은 회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죄에 빠져 본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개심한 범법자는 같은 죄에 빠진 사람보다 잘 이해하여 그들을 재생의 길로 인도하는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1)

데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의 죄나 회개가 항상 의로왔던 사람보다도 그를 더욱 강하게 해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수술이 필요해서 이를 행하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 파문된 사람이라도 합당히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저가 회개하지 않거든 저를 나의 백성으로 헤아려 나의 백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보라 나는 나의 양을 아나니 저들은 이미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들을 너희의 회당이나 예배하는 처소에서 쫓아 내지 말

고 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인도하라. 혹 저들이 회개하여 참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온다면 내가 혹 저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할 것인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저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니파이삼서 18:31—32)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명예로운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원리인 것처럼 용서도 똑같이 거룩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없었다면 회개를 외칠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와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리니”, 용서가 낳는 기적, 303—21페이지 발췌) \*

---

# 비판에서 개종으로

조셉 더블류 다링

---

**북** 아일랜드 벨파스트, 어느 토요일 저녁 무도회에서 내가 만났던 젊은 아가씨는 말일성도로서는 내가 처음 만난 아가씨였다. 우리는 그 다음날 저녁 일요일에 데이트를 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내가 받은 종교적인 교육과 두 신교의 교회에서 행한 활동 때문에 나는 말일성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시의 가두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장로들을 나는 아주 거칠지 않게 비난하였고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로서의 정당성에 대해 그들과 논쟁을 했다. 젊은 아가씨에 대한 나의 관심 때문에 나는 말일성도 교회 모임과 특별 활동에 계속 참석하긴 했지만 나는 요셉 스미스에게 거룩한 권능이 주어졌다는 주장에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던 중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성찬식에서 그날 아침에 선교 지역에서 막 돌아온 젊은 장로가 간증을 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다소 단정치 못해 보였고 여행에서 막 돌아와 피로한 듯했다. 그는 독일 액센트가 섞인 영어를 했고 그가 간증을 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나는 그가 교회가 임명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사절이라고 생각했다.

단순하고도 겸손하게 “요셉 스미스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그 눈물은 그의 뺨을 적셨다. 나는 부끄럼없이 그를 믿었고 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후 얼마 안 있어 나는 벨파스트 로우의 헬렌즈 베이에서 침례를 받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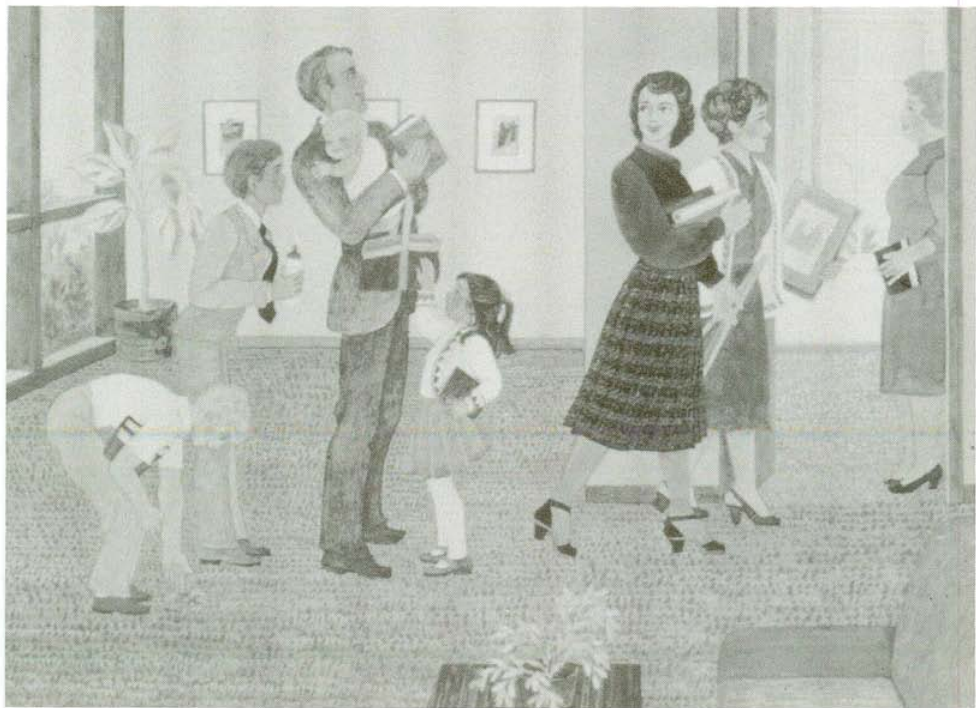
**최** 근에 나는 신전 추천서를 받기를 원하는 극히 충실한 한 신권 소유자를 접견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교회 대관장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성실했고 겸손하였으며 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아내의 부름을 지지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부장님, 그것은 저에게 몹시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라

고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교회의 중요한 집행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역할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한 보조 조직의 책임자인데 집에 걸려 오는 전화는 거의 아내의 전화이며 그녀는役員회에 참석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교회 일을 위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내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것은 생소한 경험입니다.”

## 여러분의 아내가 교회의 부름을 받을 때

제랄드 알 쉬퍼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는 것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서로 지지하고 도와야 할 영원한 중요성에 관해서 함께 토론하고 나서 접견을 마쳤습니다.

교회 봉사와 활동은 남자와 여자에게 위대한 개인적인 성취를 가져다 줍니다. 교회 책임은 매일의 판에 박힌 일의 청량제로서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가정 밖에서 비이기적인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사려깊은 남편은 그의 아내가 교회 봉사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교회에 활동적인 한 친한 친구가 그가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아내를 저녁 상호부조회 가사반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주어진 기회를 반대하고 자신과 자녀들이 함께 있는 훌륭한 시간을 갖기를 거절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경우와 나와 함께 나누었던 어느 젊은 부부의 기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와드로 이사해 갔을 때 우리의 청소년을 특별히 잘 돌보아 왔던 그 남편되는 형제는 성인들을 위해 일하는 관리 직책에 부름을 받았습니니다. 나는 그가 청소년들과 가졌던 훌륭한 관계와 그들로부터의 존경 때문에 더 이상 청소년을 맡지 못하게 된 것을 다소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장님, 염려마세요. 제

남편은 여전히 청소년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계반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젊은 부부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부로서 일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지니고 있는 직책을 적절한 범위내에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최근에 있었던 한 지역 평의회에서 스테이크 부장단의 한 보좌가 자신의 생활에서 얻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내는 어느 보조 조직에서 주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는 아내가 그 일을 잘 행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과 기도로 그의 아내를 지지하고 돕는 그의 모범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교회의 형제들에게 단지 세상적인 것 이상으로 자신의 아내를 도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벧전 3:7 참조)……바울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딤후 5:8)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안정된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에게 ‘아내는……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교성 83:2)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양에는 식생활뿐만 아니라 애정과 관심과 사려깊은 생각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만큼 아내에 대해 사려깊지 못하며 관심을 갖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식품 저장소에는 식품이 가득 채워져 있으나 우리의 자매들은 애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에 굶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킴블 대관장님은 교회 책임에 대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교회의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아내를 그들이 우리들을 훌륭하게 돕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도우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할지라도 그들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는 맙시다.”

또한 킴블 대관장님께서서는 남편과 아내가 협력해야 할 일의 종류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협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완전한 협동으로서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여성들이 영원한 책임에서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협력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바지하는 완전한 협력자가 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완전한 협력자는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도움과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11-12)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한 몸이 되어 그들 각자가 맡은 의로운 일을 서로 돕고 지지하면서 승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편 되는 우리들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말해 주며, 그녀를 보다 잘 돕고 지지하기 위해 교회의 부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의 모든 면에서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를 물어 보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보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나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후에 나는 와드 청년회장이 되었고 그 후에는 스테이크 청년회장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교회 집행 직책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회에서는 남편이 잘 알려지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상례이나 나의 경우는 그 반대였습니다. 내 남편은 불평없이 넓은 차를 몰았으며 나는 좀더 안락한 새차를 몰았습니다. 내가 스테이크 역원으로서 와드를 방문하여 역원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집을 비우게 되는 저녁에는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내가 대회에서 말씀하고 있을 동안 남편은 회중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분은 기꺼이 교회 활동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그분은 나는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분은 내가 받은 부름에서 나를 지지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사랑없이는 그러한 일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또한 그분의 현재의 부름과 미래의 부름에서 그분을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

# 그분은 나를 도우러 오셨다

자넷 피터슨



다섯째 아기가 태어난 지 3주 후에 내 남편은 새로 분리된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접견하는 자리에서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그러나 래리가 주님에 의해 그 직책에 부름을 받았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이 함께 함을 느끼자 나의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그다음 수주 동안은 우리 모두가 감독의 가정이 어떤 것이며 우리의 새로 태어난 아들 제퍼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유쾌하면서도 피곤한 날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머니가 되고 새로운 감독의 아내가 된 흥분이 사라지자 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였던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잘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카밀라 김볼 자매님이 나를 도우러 오신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해 김볼 자매님은 브리감 영 대학교 상호부

조회에서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나의 올케가 시어머니와 나를 그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김볼 자매님은 스테이크 회원이 그녀에게 제출한 질문을 근거로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 가운데 그분은 다음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당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치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비결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분의 간결한 대답은 이렷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은 그 말씀과 일치되었고, 나는 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일을 이미 경험했던 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그분은 또한 활동에 몰두하여 아내를 소외시켰던 어떤 분의 아내가 흔히 지니고 있는 그러한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픈 마음을 경험했음을 알았습니다.

김볼 자매님은 이러한 감정 곧 내가



싸우고 있는 것과 동일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일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과 그녀가 교회 일에 몰두하는 가운데 단순히 자신의 행복을

발견했던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매님은 “교회에서 감독이 되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감독의 아내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아내에게 동정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나의 울케는 이 사랑스러운 부인을 그녀의 차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면서 어머니와 나를 그분께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가버렸지만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킴블 자매님께 주어진 일을 행하라는 그분의 말씀에 참으로 감사하며 그녀가 나에게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남편이 두 달 전에 감독으로 부름받았고 삼 개월짜리 부터 10살짜리까지 5명의 자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매님은 남편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 카밀라 킴블 자매님은 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내가 그녀의 영과 위대한 사랑을 느꼈을 때 나는 내 생애에서 해의 왕국에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그녀는 뒤로 물러서면서 “자매님은 남편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새로운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요일은 더 이상 지루하고 외롭지 않았으며 감독의 아내로서 나의 고된 일은 그렇게 두렵지 않았고 나는 주님께서 감독으로 부르신 이 훌륭한 분과 결혼하게 된 것이 한없이 기쁩니다. 내 자신의 역할은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나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함

로버트 엘 헵브린

1961년 11월 스테이크 역원회에서 나는 많은 다른 역원들과 함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회원 선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목표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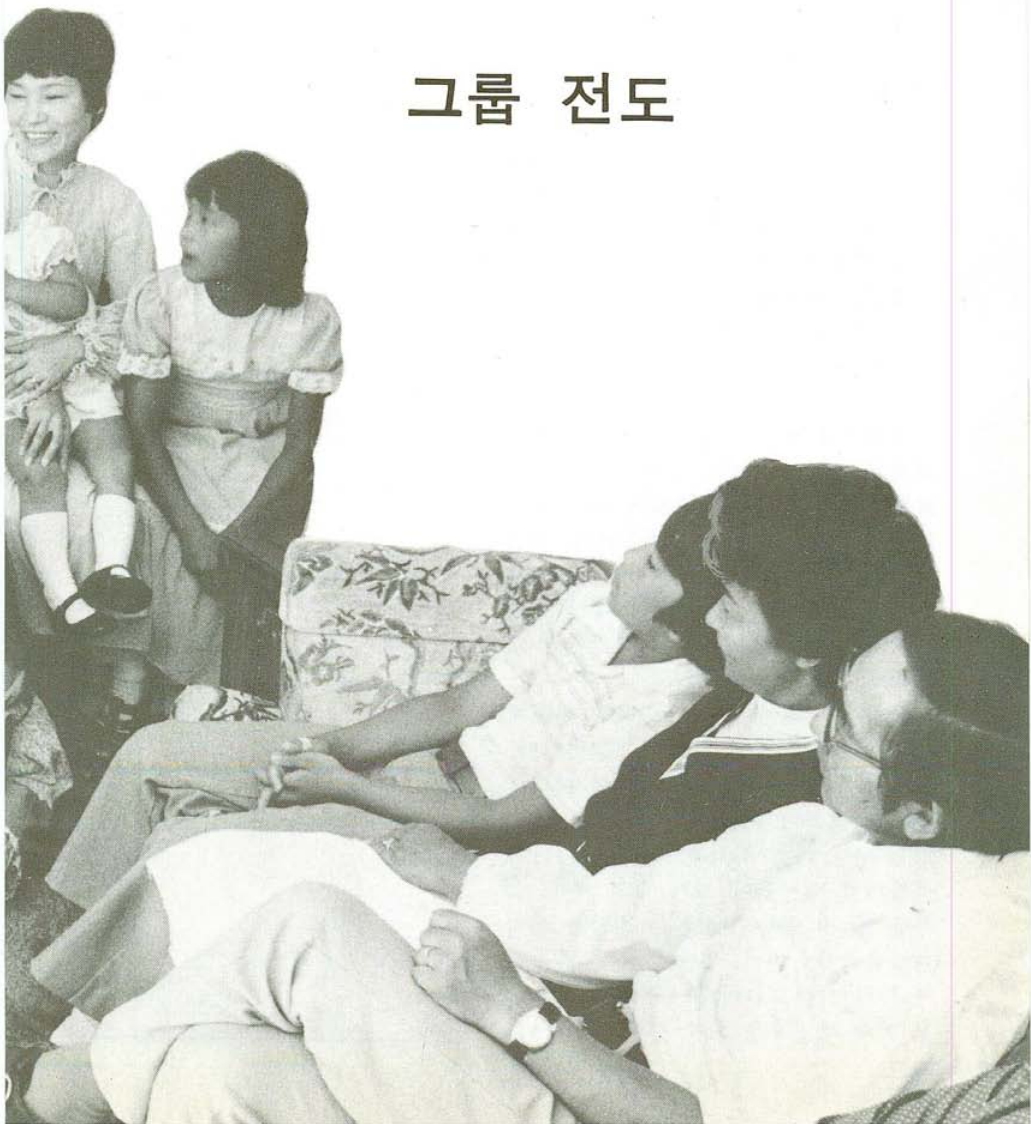


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펜서 더 블류 킴블 장로님의 권유로 나는 비회원 친구를 나의 집으로 초대해서 선교사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나의 지역에 있는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

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 2개월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님은 킴블 장로님의 요청으로 다시 열린 스테이크 역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킴블 장로님의 권고를 실제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참석한 약 50명

## 그룹 전도



가운데 3명만이 비회원 친구에게 그것을 시도했으며 단지 한 명만이 선교사와 공부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은 형제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에 심히 부끄러워진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한 자들은 모두 회원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분의 십이사도 가운데 두 분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일을 아내에게 말하고 우리는 비회원 친구 중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을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는 놀랍게도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비회원에게 선교사와 공부할 것인지 물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퍼지면 우리의 우정이 깨어지거나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비회원 사회에서 쌓은 존경받는 우리의 위치가 무너지거나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변화가 미치게 되면 그것이 교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뜻하지 않은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와 나의 아내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의논하고 있을 동안 우리는 만일 다른 비회원 부부가 같이 참석한다면 친구들이 보다 쉽게 복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부하면 주의력이 그들에게 집중되지 않으므로 더욱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

허락을 구함  
초대를 함  
반대를 극복함

---

는 여러 사람을 함께 모아 놓고 가르치며 성공을 거둔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의 성공담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영의 영향력이 아주 강렬했음에 틀림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얻어 즉시 침례를 받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만큼 정리하고 나서 우리는 선교부의 지역 지도자인 브르스 차드윅 장로와 만나 우리의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열성적이었으며 관리 선교사인 테니스 스토다드 장로의 도움을 얻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차드윅 장로와 스토다드 장로가 그 일에 대해 더 의논하기 위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 15분 내지 20분 동안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구도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영적인 느낌을 지니고 가게 하려는 선교사들의 의도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장로들은 자주 우리의 의견을 물어 우리가 영감을 받았을 경우 방금 토론한 그 주제에 관해 간증하도록 하는 신호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질문에 대답하여 도와 주기로 했습니다. 장로들은 우리가 구도자와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침례와 지혜의 말씀에 대한 목표를 얻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개종의 과정을 정리해 나가는 동안 아무런 방해나 압박감을 없앨 수 있었으며 침례와 장기 활동율도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공과가 시작되기 전에, 장로들은 일

찌기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와 함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는 시작할 때 한 회원에게 기도하도록 하고 공부를 마칠 때 다른 회원에게 기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친구들과 함께 갖는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우리는 명단에 있는 40명의 친구를 모두 초대한다면 4~5명의 구도자로 구성되는 두 그룹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그룹은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다른 그룹은 토요일 저녁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비회원 친구를 방문할 때 우리는 결코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허락을 구함.** 부부 중 한 분만이 회원인 부부를 초대하기 전에 회원의 허락을 얻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허락을 얻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계획을 설명하고 우리가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두 분을 초대해도 괜찮겠는지 물어 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 우리는 회원에게 배우자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행사하도록 하라고 제안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을 얻도록 합니다. 이러한 회원들은 대개 순박합니다.

**초대를 함.** 우리가 적절한 순간이 왔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교회에 대한 토론 공부를 위해 몇몇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교회의 기본 교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유익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교리와 그 프로그램과 그들이 믿는 것에 관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의문에 관하여 묻거나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후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우리는 두 분이 모두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당신의 아내(또는 남편 또는 물몬 친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는 당신이 아내(남편 또는 그들)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압박감이나 확실한 언질을 주어야 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참석하기로 작정한다면 되도록 권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참으로 원치 않을 경우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반대를 극복함.** 그들은 배우자나 친구들의 종교에 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주 이러한 구도자들은 왜 그들이 공부를 망설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대개 우리는 사려깊게 그들의 반대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종종 마음을 돌려 참여하게 됩니다.

별로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위대한 목적과 개인 및 가족의 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미나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비회원 친구 가운데는 종교적

이며 교회 교리에 관해 다소 알고 있으나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반대에 우리는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사야 55 : 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미나는 여러분 스스로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자녀를 갖게 될 비회원에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모든 연령층 특히 어린이, 사춘기의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대개 그들의 자녀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장하여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그들의 자녀를 몹시 사랑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교회의 매력은 영원한 결혼에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하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사후에도 한 가족으로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공부해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부부들에게 모임 시간과 모임 순서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 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의 초대장을 받아들이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음 접근을 시도했을 때 우리는 몹시 놀랐습니다. 우리 친구 중 3분의 2가 이 초대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의 명단에 적힌

우리는  
 질문에 대답할 때  
 신중하고  
 참을성있게  
 임했고  
 주로  
 성경에서  
 대답을 찾았으며  
 때로는  
 말일성도 경전을  
 인용하여  
 대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16쌍의 부부에게 요청했을 때 6명으로 구성된 두 그룹의 구도자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회원인 3쌍 내지 4쌍의 부부, 선교사, 우리 부부와 더불어 각 그룹은 13명 내지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요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후에 다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에 관한 또 다른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이 그룹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초대장을 발행할 때 영감을 느꼈으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이러한 모임은 영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경험을 통하여 크게 감동한 대부분의 비회원은 눈

에 띄게 변해 갔습니다.

대개 장로 중 한 분은 전반부 토론을 인도하고 나머지 다른 장로님이 질문을 계속하는 가운데 다른 후반부 토론을 인도했습니다. 때때로 구도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다음 주까지 기다려도 좋을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동의했고 우리는 언제나 약속한 대로 질문 내용을 처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이며 만족할 만하고 또 영감적인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구도자들은 거의 언제나 만족해 했습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답할 때 신중하고 참을성있게 임했고 주로 성경에서 대답을 찾았으며 때로는 말일성도 경전을 인용하여 대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교회가 참되다는 지적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과를 듣거나, 물문경이나 다른 교회 서적을 읽거나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 순수한 감정적인 반응과 성령의 영향력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귀찮게 여겨서는 안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힘차고 명백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되 반드시 즉각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질문은 구도자들이 아직 토론할 단계가 아닌 개념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질문은 강조되고 있는 주요 요점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왜 우리가 그 대답을 뒤로 미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대답할 시기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공과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이 교회가 참된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열망을 갖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그들의 간증이 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도자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음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교회에 입교하도록 권고합니다. 한 번은 우리 친구 하나가 그의 아내와 함께 공부를 마치고 나서 다섯 번이나 우리들을 그의 집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약 1시간 동안 그의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그는 우리의 대답을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질문이 없었고 그와 그의 아내는 간증을 얻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으므로 침례를 받으라는 우리의 권고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쳤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3일내에 우리는 장로들과 함께, 각 부부들을 찾아가서 남은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 그들에게 교회에 들어오라고 권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그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구도자들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주내에 우리의 성공에 대해 들은 교회의 친구와 친지들이 우리에게 다른 그룹을 모을 계획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있다고 대답하고는 그들과 그들의 비회원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명단에 적혀 있는 나머지 비회원과 일부만이 회원인 부부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들 중 약 3분의 2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처음 그룹에 참석했으나 침례받기를 결정하지 않았던 부부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에게 복음토론을 하기 위해 두 다른 그룹을 만드니 다시 그 모임에 초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그룹이 25명으로 구성되었고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차드워 장로나 스토다드 장로는 그 토론을 보다 훌륭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답변도 대체로 정확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석한 몇몇 회원들은 후에 그들이 이 모임에서의 가르침과 성령을 경험해 보기까지는 간증이 무엇인지 사실상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우리들이 놀란 것은 참석자들의 약 3분의 2가 간증을 얻었으며 장로들에 의해 별도로 공부를 했던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막연히 전도를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할 만큼 잘 아는 비회원 친구들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서 우리는 약 30명의 비회원 친구를 갖게 되었으며 전과 같은 성공적인 경험을 다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애리조나 투손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시 약 30명의 비회원 친구들을 사귄 후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 그룹 모임을 가졌는데 그것도 전과 같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중 3분의 2가 공부에 참여하라는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이들 중 3분의 2가 침례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제



인과 나는 이 그룹을 가르쳤으며 그후 우리는 스테이크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 습니다. 우리가 교회 선교사가 아니었더 라면 우리는 다시 복음 선교사의 도움 을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친구 가운데 아무도 우리들의 공부나 초대를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습 니다. 토론에 참여하라는 우리의 초대 를 승낙한 자들은 약 10퍼센트만이 두 세 토론을 마치고 나서 계속하기를 원 치 않았으며 공부를 마친 자들의 4분 의 1만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 았습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 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질문했거나 그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속적인 우정을 거절했다는 불평을 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처음에는 교회에 들어 오기를 반대했던 구도자 가운데서 몇 사 람은 5년 후 또는 19년 후에 결국 침례 받았습니 다. 그들은 단순히 개종되기 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마친 후 우리가 우정을 나 누는 것을 중단하면 그것은 그들의 궁 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보 다는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회 원 가운데는 우리 집에서 열린 다섯 번의 다른 그룹 가운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하 자는 초대를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습니 다.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도 교회의 훌륭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가끔 참석하며, 모든 사람 들이 건축 기금을 냈으며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 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증을 갖고 있기는 하나 아직 교회에 들어올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 니다.

우리의 그룹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들 어온 사람들의 약 90퍼센트는 아직까지 활동적입니다. 그룹 토론의 독특한 면은 또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일입 니다. 즉 구도자들이 그들의 질문에 답 이 주어질 때 이를 서로 지켜 보게 되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며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간증을 얻으며 교회에 들어갈 결심 을 하게 되는 과정 등을 서로 지켜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룹 모임(토론)이 우리들의 우정의 유대를 갖게 함을 확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수년간 교회에 서 간증과 우정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 때로는 직 접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았습 니다.

토론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친구 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읽은 후 복음 공 부 시간에 여러분의 가족과 다음 질문 가운데 몇몇에 대해 토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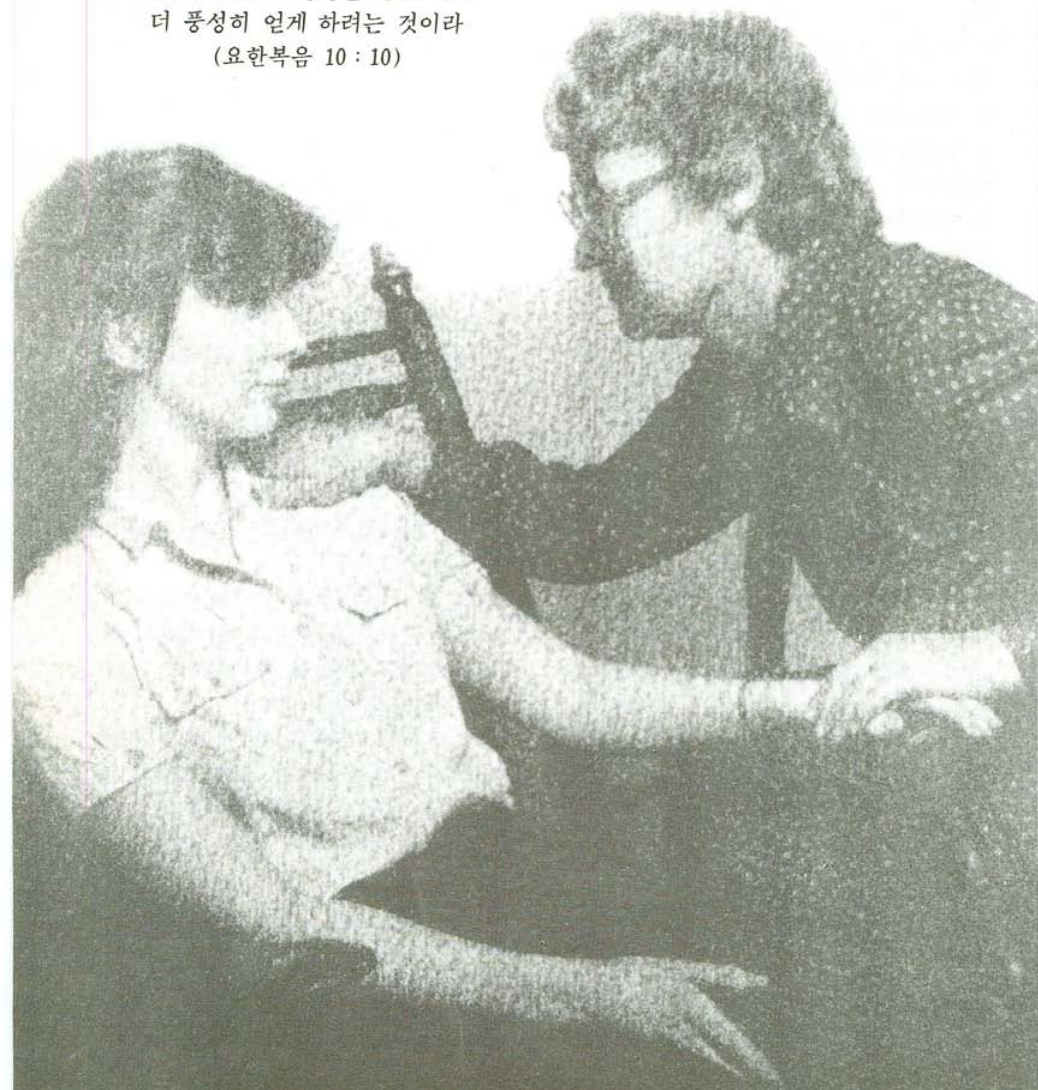
1. 비회원 친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 그룹 전도 방법의 장점과 단점 은 무엇인가?
2. 이 기사에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선 교사와 공부하도록 권유할 때 비회원 친 구들의 반대에 대담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제안은 무엇인가?
3. 여러분이 비회원 친구에게 아직까 지 선교사와 공부하도록 권유하지 않았 거나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이 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계획 을 세우겠는가?
4. 여러분의 어떤 비회원 친구들을 그 룹 또는 개별적인 가족 단위의 모임을 준 비하여 선교사와 공부하도록 권고하겠 는가? \*

---

# 로라의 후원자

새라 이 힌즈

내가 온 것은...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 : 10)



내가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로서 봉사하는 동안 나는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 몇 년 전에 가졌던 경험이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해줍니다.

동반자와 나는, 미망인 앤더슨(가명) 자매와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지진아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그녀의 두 자녀를 방문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미망인 집을 즐겁게 방문하는 몇 개월 동안 우리는 그녀의 아들을 만났으나 그녀의 딸 로라(그녀는 매우 수줍어 했음)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로라가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을 보거나 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상호부조회 세미나를 마치고 나는 앤더슨 가정으로 월례 방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달 초에 방문했을 때는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세미나에서 들은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사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방문 교육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매들을 돕겠다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단순히 그들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매달 여러분의 명단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체크하는 데 급급하십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개월 동안 앤더슨 가족을 방문했으나 우리는 로라를 알기 위해 진정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오후에 집에서 로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앤더슨 자매가 나와서 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난로에 없는 것을 살펴 보기 위해 자리를 뺐습니다. 거기에 로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흔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발판 위에 얹어 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듯 했으나 내가 몸을 숙이고 그녀의 발에 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성령이 조용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자 그것을 로라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상호부조회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너의 아름다운 영을 느낄 수 있다면 특별한 경험이 될 거야.”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만, 나의 발에는 큰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달째 신을 거의 신을 수도 없고 걸을 때 통증을 느껴요.”

나는 그녀의 발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커다란 혹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큰 도움없이 그녀가 교회나 그 외의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발 문제는 곧 네 자신의 문제야. 자 어떻게 하겠니?” 나는 “내가 그녀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야 할까?”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령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떠오르자,

“바로 그렇다.”라는 속삭임이 들려 왔습니다.

“로라야, 내가 너의 발을 고치도록 도

와 즐까? 내 남편의 아저씨가 의사란다.” 그분은 오늘 쉬는 날이지만 우리 집 건너 편에 살고 계시. 나와 함께 가서 너를 고칠 수 있는지 물어 볼까?”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로라는 잠시 동안 신뢰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그렇게 해보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준비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릴텐데요, 좀 도와 주시겠어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부축하고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내가 본 단순한 아름다움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해들을 저 침대에 누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며 보냈을까! 나는 문에서 그녀가 이것 저것을 챙기는 것을 보고 전보다 더 강렬한 성신의 힘을 느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로라를 위한 이러한 행동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구세주의 생애와 가르침은 매우 단순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 : 34)

나는 로라의 어머니에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로라에게 그와 같은 관심을 갖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로라가 13세였을 때 걸린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그와 같은 불치의 흑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갔습니다. 로라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로라의 발의 흑은 소아마비의 결과로 생겼지만 치료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교회 회원인 한 외과 의사를 소개

“내 양을 먹이라”  
“서로 사랑하라”

해 주었고 그는 며칠 후에 로라를 보자고 했습니다.

전문의가 로라의 발을 진찰한 후 대기실로 나와 나에게 “당신이 로라의 언니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 그애가 나를 힌즈 자매라고 부른답니다. 나는 복음 속에서 그애의 자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애가

나에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언니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로라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완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힌즈 자매님……재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기꺼이 무료로 수술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이 그에게로 임했음을 알았습니다.

로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어 갔습니다. 방문 교육 동반자와 나는 다음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로라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로라는 일어나서 걸어다녔으며 그녀가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붕대는 풀렸고 그녀가 원하는 곳은 어디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그녀의 회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거의 매주 로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성령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발이 많이 나아졌고 걸을 수 있으니 그녀와 함께 행할 수 있는 뜻있는 무엇을 찾아 내도록 도와야 한다.”

나는 그 속삭임에 놀라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서로 강화시키며 돌보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 전에는 결코 알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다소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로라의 어머니와 함께 로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관심에 대해 감사했으며 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나는 방문 교육 동반

자와 나의 남편과 함께 내가 받았던 성령의 속삭임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이 책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근처에는 심신 장애자를 위한 특수 학교가 있으며 심리학자인 나의 남편은 그곳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친구는 로라와 나를 학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가 그날 오후에 로라를 데리러 갔을 때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새옷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옷은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로라는 아름다와 보였습니다. 로라 역시 마음이 들쭉했습니다. 이날은 그녀를 위한 특별한 날이며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잘 몰랐지만 온 마음을 다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지역에 교회의 조그마한 지부가 생겼을 때 나의 남편은 냉담해졌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뻐하며 그리고 다섯 아이를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하위드는 내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나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배신감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 나는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의로움을 느끼면서 진초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울면서 진초더미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며 나의 고통을 고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강렬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를 사랑해 왔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와 같은 권고를 나의 머리에서 지워 버리려고 애썼으나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보일까요?” 마침내 또 다른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를 비난하지 말며, 존경하며, 칭찬하며, 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며 그에게 간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얼마나 내가 나쁜가롭게 달았습니다. 나는 그를 비판했고 화를 내었으며 남편에게 제대로 칭찬의 말을 해본 적이 없었고 화를 내는 이외는 내가 참으로 느낀 것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남편에게

구세주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는 것과 복음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매일 나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나는 남편에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고 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애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또한 워드 신권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서서히 내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위드는 자녀들과 내가 참여한 몇몇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종종 교회도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 중 네 명이 부모들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신전에서 결혼했고 다섯번째 자녀가 약혼을 알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신전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년이 남아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하위드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망설였지만 우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결혼 35년 만에 결국 신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 다섯 명 모두와 그들의 배우자는 우리와 함께 프로보 신전에 가서 가족으로 인봉되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놀랍고 영적이며 행복한 날이었는지!

하위드는 그후 소년대 대장,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단 보좌, 가정 복음 교사로 일해 왔고 지금은 대제사 정원회 그룹 지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열렬한 기도에 대한 그날의 응답 즉 그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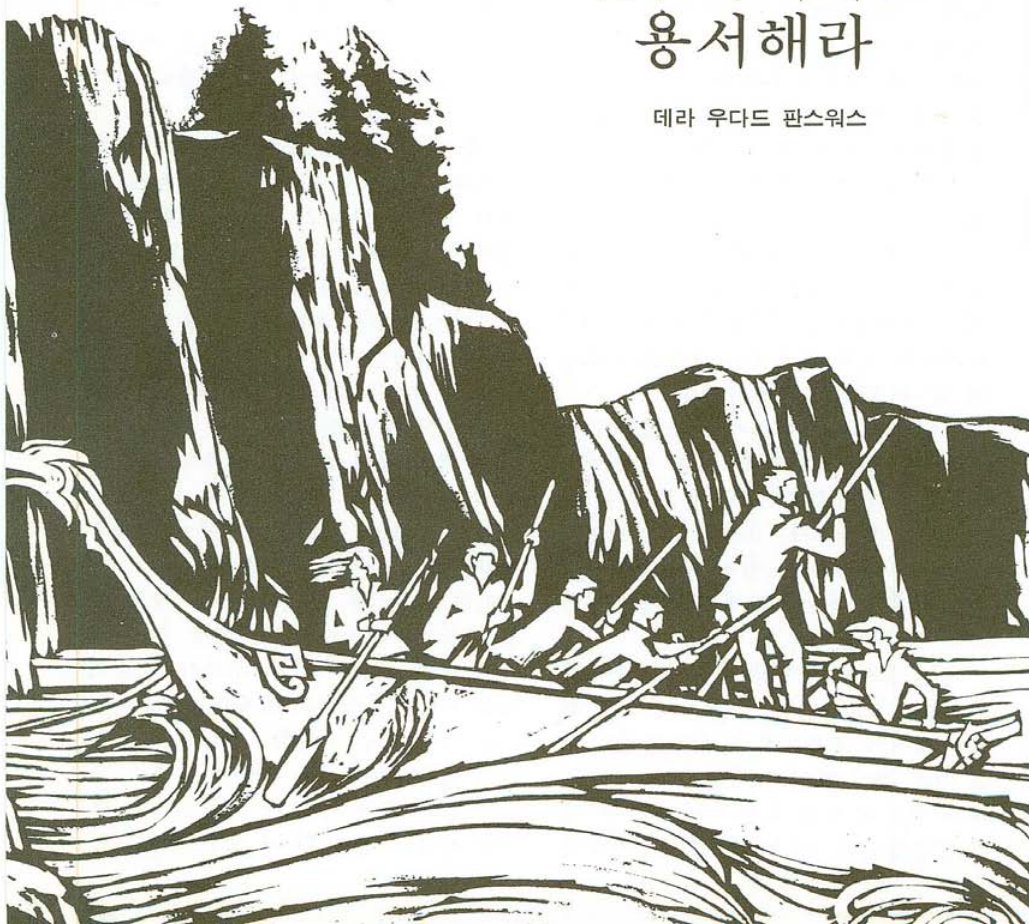
나의 부친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읍니다만, 자연의 경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사랑하셨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우리는 가족 나들이를 즐겼으며 그것은 이름난 장소나 해변이나 산이 아니라 자연이 훌륭하게 다듬은 야생의 지역으로의 도전이었읍니다. 때때로 우리는 식량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으며 어떤 여름에는 짐을 말에 싣고 오래된 길을 따라가기도 했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개척

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포장 마차를 타고 뵈 수 있는 대로 문명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즐거운 나들이에 대해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스쳐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가장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은 워싱턴의 퓨짓 사운드에서 보냈던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뱃머리에

## 내가 실수하더라도 용서해라

데라 우다드 판스워스



큰 짐승 머리가 달린 9미터나 되는 교묘하게 깎아만든 인디언 전투 카누우가 우리들의 집이었고 그해 여름의 교통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원시인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가죽과 같이 검게 탔으며 거칠어졌지만 우리는 더 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즐거웠던 소풍이 끝날 즈음 우리는 카누우를 해변의 모래 밭에 끌어올린 후 모래 위에 한가하게 드러누워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어딘가로 여행을 계속하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느껴졌던 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는 늦은 오후였지만 우리 모두는 카누우 안으로 들어가 자고 싶은 사람을 위해 바닥에 모포를 깔고 카누우를 그만의 다른 쪽 해안으로 저어 갔습니다.

그 카누우는 너무나 넓어서 나의 부친은 여러 개의 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고대의 갤리배를 짓던 노예처럼 하나씩 노를 잡고 저어 갔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은 채 만족스럽게 배를 저어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해안이 우리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고 우리는 급류에 휘말려 급속히 넓은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부친은 과거, 배의 선장이었고 기선에서도 일해 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두 어린애를 카누 밑바닥에 앉게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균형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꼬마들(나의 형, 두 동생, 나 자신을 일컬음)

도 노를 저어라. 그러나 우리가 이 위험을 안전하게 벗어나기 전에 필요하게 될 것이니 힘을 아껴라.”

얼마 후 폭풍이 시작되었고 파도는 점점 높아 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멀리 보이는 언덕은 희미해져 갔고 다가오는 어두움 때문에 자주빛으로 변해 갔습니다.

노련한 선원인 나의 부친은 큰 파도 사이로 카누우를 물고 갔으며 우리 주위는 온통 거품 투성이었습니다. 카누우 옆에서 일고있는 파도는 우리들을 삼켜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배를 저었으며 결국 밤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잔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노를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이러한 파도 하나가 우리를 덮쳐 바다로 내던져 버리거나 앓을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를 짓는 우리의 팔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단하지 않았습니. 내 팔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팔은 기계적으로 단지 노를 앞뒤로 흔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괜찮나?”

“괜찮아요.”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해맨 끝에 겨우 바람과 조수를 거슬러 움직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바람과 밀려 오는 파도의 울부짖는 소리 곁에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벼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의 거



센 격동 속에 휘말린다면 틀림없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파도들이 앞으로 밀려 갈 때 재빨리 그 사이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어두움에 익숙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주 선명한 것이 아니고는 운곽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갔습니다.

나는 부친이 하신 다음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이번에 실수하더라도 용서해라. 우리가 해뜨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확률은 천 번 가운데 한 번밖에 없어. 지금이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란다. 준비되었니?”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길한 징조의 벼랑으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앞을 내다 보지 않고 단지 열심히 배만 저었습니다. 곧 카누가 휩 돌아갔습니다.

“노를 집어 올려라!” 하고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속히 노를 집어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모래가 느껴졌습니다. 카누는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나무 숲을 통해 머리 위로 소리내며 지나갈 때 우리의 머리도 웅웅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큰 파도가 카누를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 아버지는 자신이 큰소리로 말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계셔.”

우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배 안에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기진맥진

하여 잠들었으며 부친과 어머니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 버리면 우리는 다시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카누우보다 약간 큰 아늑한 작은 만을 보았고 카누우는 모래 위에 얹혀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위 벽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으며 갈라진 틈이 있었는데 이것은 카누우가 이 대피소로 겨우 통과할 수 있을만한 것이었습니다. 부친의 눈이 예리하지 못했거나 부친의 손이 능하지 못했다면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 남아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해안을 수킬로미터를 오르내렸으나 그 벼랑에는 그 외에는 들어갈 장소가 없었습니다.

마치 땅콩 껍질처럼 흔들리는 카누우를 타고 태풍을 통과하여 겨우 카누우를 둘러쌀 만큼 작은 대피소로 어두움 가운데서 곧장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호 이외는 아무것에도 들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우리 가족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찾는 긴 탐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탐색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여동생과 나 자신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끝났습니다. 나의 부친도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침례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번 나는 경건과 두려움의 감정으로 푸킷 사운드의 그 폭풍의 밤을 회상했습니다. 나의 부친이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된 것은 거의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물거품과 풍량이 심한 암흑의 바다에 표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



나히드는 아침 식사로 라시(버터 밀크와 사탕수수대 즙을 혼합한 액체)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로 이것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흥분했기 때문에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 그녀가 생전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히드는 곧 열한 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학교에 가기를 고대했습니다. 이곳 파키스탄의 작은 마을에는 소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나히드는 우체국에 가서 서예가인 알리무 주버가 자기 힘으로 글을 쓸 수 없는 마을 사람을 위해 편지를 써 주는 것을 지켜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온 답장을 읽어 주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알리 무주버는 먼저 편지를 보내고자

## 나히드와 귀중한 비밀

던 애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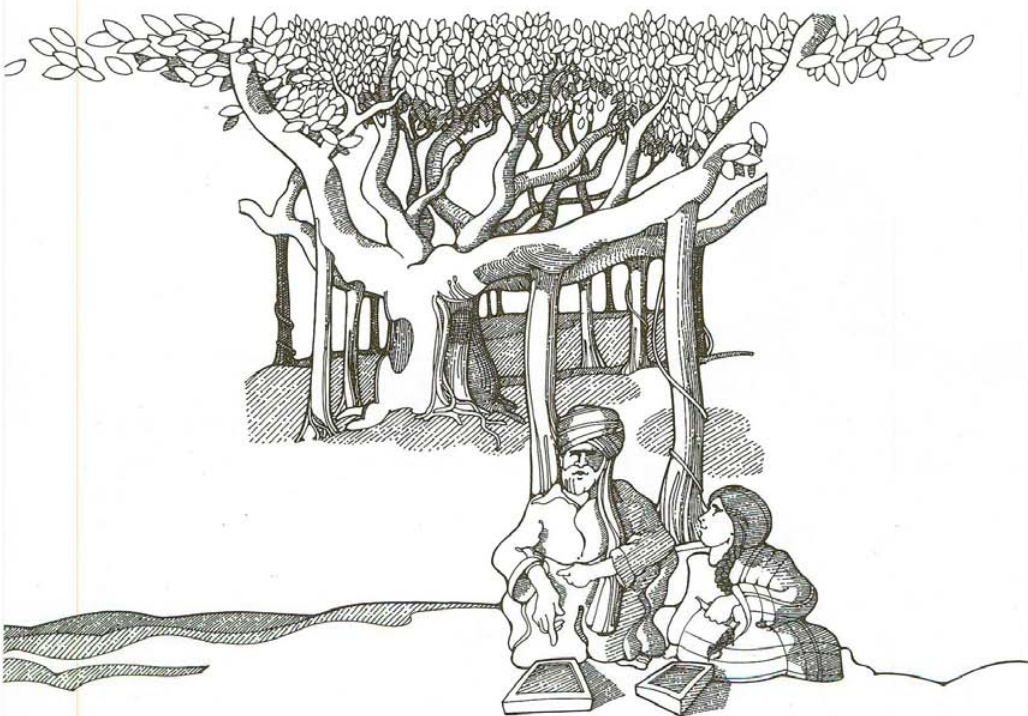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시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마을이나 도시로 보내시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펜을 들어 그 축을 자세히 살펴본 후 그 사람이 편지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세히 들으면서 큰 잉크 병에 펜을 담갔다 종이 위에 그 내용을 써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히드는 알리 뮤주버가 아름다운 글자를 “적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쓸 때 나는 펜촉 소리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잉크 냄새를 맡고 마을 사람들의 소근거리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나히드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글을 쓰는 것과 꼬불꼬불한 글자를 읽어 내는 신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것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알리 뮤주버 아저씨가 하는 일을 알아낼 수 있을거야.” 하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오빠 바시어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그를 들판에서 일하게 하기 전에 잠깐 동안 학교에 다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에게 베투와 대나무 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나히드는 버루와 뾰족한 펜을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나히드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커다란 보리수 나무 그늘로 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카다 하피즈(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라고 외쳤습니다. 작은 마을에는 학교 건물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맑은 날에만 공부를 합니다. 비가 내리면 학생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나히드는 집으로 돌아올 때 천천히 걸어오면서 자신이 알리 뮤주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있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리 속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날들에 관해 생각하느라고 어지러웠습니다. “아마 내가 읽고 쓰는 것과 같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지도 몰라.”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집에 있는 것을 원할지도 몰라. 학교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지도 몰라. 이와 같이 그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안뜰에 있는 화덕 옆에 앉아 가족의 저녁 식사를 위한 빵인 차파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히드에게 미소를 지으며 “학교에 가니 어때?”라고 물었습니다.

나히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루와 대나무 펜을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나히드가 다시 안뜰로 나오자 걱정스러운듯이 “학교가 어때?”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알리 뮤주버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리 뮤주버가 쓰는 글자로 그와 같이 많은 의미를 가진 모

양 중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니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딸의 눈을 바라보고 드디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 나히드야, 여자들이 해야 할 대부분의 의무는 한 순간에, 단시간에, 또는 하루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내가 너처럼 어린 소녀였을 때, 나에게서는 단지 이러한 일들만 할 수 있었단다. 소녀에게는 학교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단다. 그러나…… 내 딸아, 너는 글자와 그것들의 아름다운 비밀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되지 않았니. 그와 같은 귀중한 비밀은 쉽게 주어지 그러나 지는 않는단다. …… 확실히 하루 동안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히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나히드가 학교 첫날에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곁을 떠나 마을의 중심지로 짱총 짱총 뛰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가뻛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소년들이 피 카우더 게임(결승선이 있는 달려 밀치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어머니가 머리에 큰 물항아리를 이고 마을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우물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감사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녀는 내일 그리고 또 내일 다시 학교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그녀의 소녀 시절의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히드는 홀몸히 배워서 그녀가 배웠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가족은 세상의 귀중한 말을 읽고 쓰는 사랑을 가까이 두게 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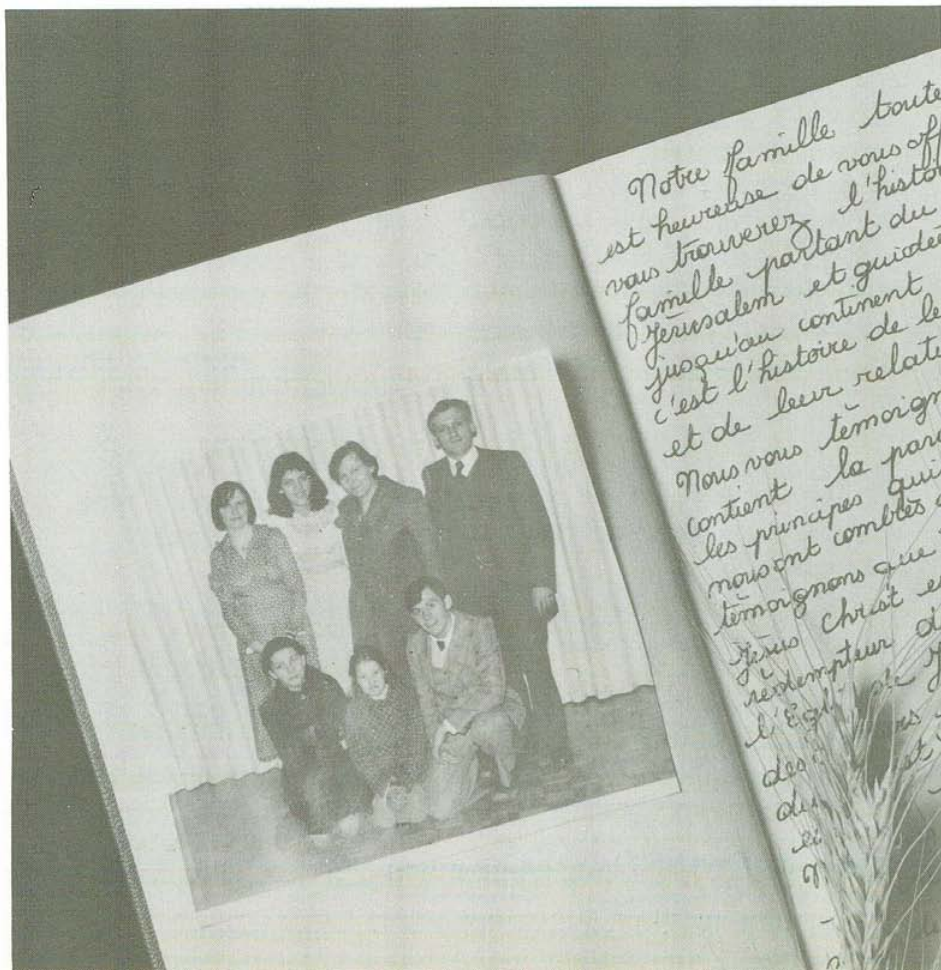
# 예기치 못한 수확

글래디스 시 파머

1965년 내가 프랑스를 떠난 이후 마린 리엄 자매가 1978년 겨울에 우리 와드에서 파리로 떠나기까지 그곳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다른 선교사를 나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고 그녀 역시 선교부의 발전에 관한 소식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었습니다.

다음해 여름 나는 그녀 편지 속에 동봉된 1964년 베어사이에서 나의 후임 동반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은 도대체 어디서 발견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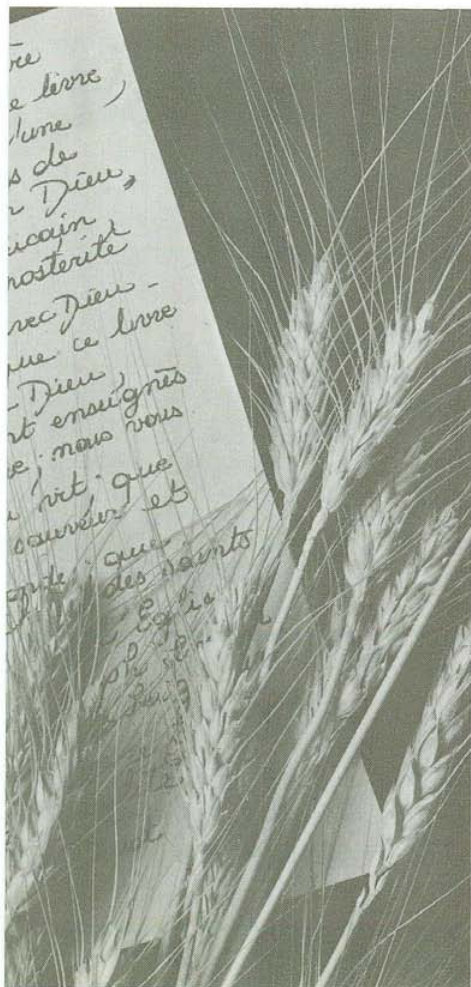
그녀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글래디스 자매님, 지난 주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테스뮤르 가족을 방문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한 물몬경을 인수하려던 참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테스뮤르 자매님은 내가 오래된 교회 회원임을 알자 그녀의 방 앞에 있는 의자에 올라서서 이 사진을 꺼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쪽에 있는 선교사를 가리키면서 혹시 내가 그분을 아느냐고 물

으셨습니다. 잠시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나의 와드에 나가고 있는 파머 자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선교사를 알아냈다고 생각하고 온 가족이 야단이었습니다. 테스뮤르 자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 자매의 간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선교사들에게 혹시 나를 아는지 또한 찾을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리엄 자매는 그 가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 와드 감독단 제2보좌로 계시는 가장은 아내가 침례받고 난 수개월 후에 교회에 들어왔으며 일곱 가족 모두가 활동적이고 선교사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활동적인 가족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그 어머니는 그녀가 개종하게 된 것이 나 때문이라고 했을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들은 내가 프랑스에서 가르쳤거나 침례계 한 그러한 개인이나 가족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여나 하고 나는 매일 저녁에 조금씩 적어 둔 조그마한 일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드디어 1964년 여름 일지에서 데스뮤르 가족에 관해 적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7월 8일. 그랑센에 있는 데스뮤르 부인을 다시 방문하여 첫번째 토론을 가르쳤다.

“7월 9일. 데스뮤르씨에게 네 가지 토론을 가르쳤다. 그는 도전적이었다.”

이 글이 나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도 기억할 수 없으며 희미하게 그 집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새로운 동반자는 불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혼자 가르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나는 열 두 토론 가운데 네번째 토론을 가르쳤는데 그녀의 남편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해 도전적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낙심한 동반자에게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달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7월 21일. 6시간 동안 전도하였다. 데스뮤르 가족을 방문했다. 아내는 상냥하고 신앙심이 있었고 남편은 완고했다.

“7월 26일. 미국 지부에서의 선교사 프로그램. 비활동적인 가족…… 그리고 데스뮤르 가족을 방문했다.

“7월 29일. 데스뮤르 가족과 두번째

토론을 가짐.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종종 선교사들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할 수 없이 침례 목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스뮤르 가족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편물 속에 들어 있는 녹음 테이프를 통하여 데스뮤르 가족이 교회로 개종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64년 내가 그들의 가정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약 1개월 후에 데스뮤르 자매는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의 구두를 닦으면서 남편과 함께 복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전적으로 물론경을 부정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물론경의 진실성에 대해 간증했던 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두려웠지만 곧 커다란 기쁨과 화평이 찾아 들었습니다. 다음 주 동안 그녀는 종종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성령의 증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그 가족은 베어사이의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970년, 내가 그들을 만난 지 6년이 되었을 때 두 장로가 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데스뮤르 부인이 그들에게 한 맨 처음 말은 몇 년 전의 자매 선교사의 방문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이후에 그녀가 가졌던 영적 경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은 그녀에게

그것은 성신의 증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침례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딸이 맹장염에 걸렸을 때 테스뮤르씨는 직장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딸과 함께 있지 않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가 두 장로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아내에게 종교에 대해 염려하기에 앞서 딸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로 가운데 한 분의 성경을 빼앗아 찢고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날 테스뮤르 부인은 다음과 같이 남편을 타일렀습니다. “선교사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경비로 이곳에 왔어요, 적어도 그 성경값은 변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테스뮤르씨는 선교사의 집 주소를 갖고 찾아가서 책값을 지불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에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아내에게 다시 공부할 시작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녀와 세 자녀는 1871년에 침례를 받았으며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다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결국 1972년에 그의 가족을 따라 침례의 물가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성경을 찢어 버렸던 선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는 몇 명을 침례주고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의 기념품 가운데는 찢겨진

성경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예기치 않던 소식을 기쁨의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테스뮤르 형제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줄 수 있기를 원했으며 그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그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내 사진을 가진 한 회원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실에 걸어 놓고 베어사이로 오는 모든 선교사에게 혹시 나를 아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테스뮤르 형제는 내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었으므로 나는 언제나 그의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며 그 자신의 “땅”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옥하지 못하였으나 후에 그 씨앗이 자라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돌아가면서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주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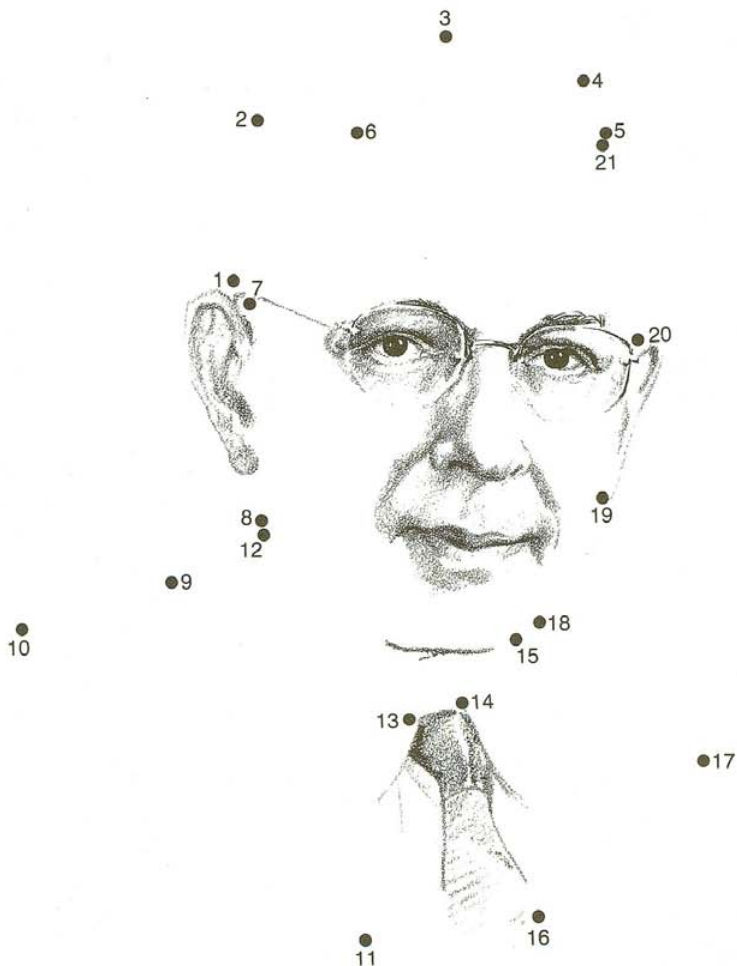
이 녹음 테이프를 듣고 나서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들이 녹음 테이프와 함께 보내 준 불어 물몬경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 민족에게도 복음을 나누었다는 간증과 함께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으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의 선교 사업은 이제 완전히 한 절기를 마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몬경에 대한 내 자신의 간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생활에 미치게 될 결과를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



# 조셉 필딩 스미스 (1876-1972)



“**조**셉 필딩, 일어나라.”하고 그의 어머니는 조셉의 어깨를 가만히 밀면서 속삭였다. 소년은 반사적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다. 그는 어떤 여인이 애기를 갖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그의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았다. 장남인 조셉 필딩은 마차로 종종 그의 어머니를 임산부들에게 모셔다 드렸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번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밤중에 일어나 어두운 헛간으로 등불을 들고 가서 말을 수레에 채우던 일이 기억난다. 나는 어머니를 임산부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머니가 산파로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돌봐 줄 수 있게 했다. 나는 마차에 앉아 기다리면서 왜 하필이면 어린애가 그렇게나 자주 밤중에 태어나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마차를 몰고, 그의 부친 조셉 에프 스미스가 안계실 때 테일로스빌의 가족 농장에서 돕는 일 이외에 어린 조셉은 그의 열두 명의 동생들을 돌보았다. 그는 기저귀도 갈아 주고 빵과 파이프도 구우며 누비 이불을 만드는 것을 돕기도 했다. 조셉 필딩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여 종종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성경을 읽었다. 12세 때까지 그는 물론경을 읽었다.

그가 영국 제도에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그는 지 시 엠 아이 백화점에서 일했으며 부친의 비서로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하기도 했고 후에 결혼했다. 1901년 그가 선교부에서 돌아온 후 그는 교회

역사 편찬 사무실에 고용되었다. 그는 9년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가정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청남 상향회 임원으로 16년간 일했다. 1906년 그는 교회 역사 편찬원의 보조가 되었으며 다음해에 그는 제보 협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후에 30년간 여기에서 서기와 책임자로 일했다. 1921년 3월에 그는 교회 역사 편찬 위원이 되어 그 직책에서 49년간 봉사했다. 33세 때 조셉 필딩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그는 심히 바빴다. 그러나 그는 또한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솔트레이크 신전 신전장으로 봉사했고 25권의 책을 발간했으며 교회 교리를 정의하는 수많은 기사를 썼다.

그는 언제나 음악을 좋아해서 “가시 발 힘한길”(찬송가 212장)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찬송가를 썼다. 그는 60세 후반까지 핸드볼을 했다.

네 분의 대관장 아래서 60년간 사도로서 봉사한 후에 그는 93세의 고령에 교회 10대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겨우 2년 반 동안 대관장으로 봉사했으나 그의 지시로 교회의 많은 중요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1972년 7월 2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서거와 더불어 교회는 위대한 선교사며 문필가며 역사가며 신학자며 제보학자를 잃게 되었다. 그의 생애는 개척자의 시대부터 우주 시대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이었다. \*



## “구세주와 가까이 생활하라”



“페리 장로님, 장로님이 세계의 어린이에게 한 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될 수 있는 한 구세주의 생애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기쁨

구가 신앙에 관한 것이면, 나는 그 옆의 빈 칸에 신앙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성구를 기억하지도 못한 채 너무 많은 시간을 경전을 읽는 데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읽은 것의 10퍼센트 정도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기울여 탐구한다면 50—60퍼센트



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어린이가 여덟 살 때부터 그렇게 할 경우 그가 경전 연구에서 얻을 크나큰 지식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는 페리 장로의 부모와 그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나의 부친은 내가 겨우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 와드의 감독이 되셨습니다. 내가 6살이 되었을 때 우리

과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길에서 돌아선다면 언제나 벌을 받게 되고 그들의 결정 때문에 슬픔과 상심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그들이 공부한 것을 담아 둘 수 있는 일종의 서류철 같은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나는 여덟 살 때 이미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경전을 읽고 특별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밑줄을 긋고 그것의 주요 개념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성



## 친구가 친구에게

줄린 메레디스

와드의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을 데리고 거기서 일하게 했습니다. 내가 맨 처음 했던 일은 판자에서 못을 빼내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펴는 것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나의 부친은 대가족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다호주에서 조그마한 땅을 경작했으므로 가난했습니다.

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였지만 그분과는 편자던지기 놀이를 했습니다.

“나의 모친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위의 어떠한 분보다 힘이 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에는 맨 먼저 일어나시고 밤에는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드시며 하루 종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부친께서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께 고등학교에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5달러와 솔트레이크로 가는 편도의 차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그곳에 가서 그 외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부친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소를 돌보는 일을 구했으며 비하이브 하우스(대관장의 저택)에서 3년 반 동안 그분의 가족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말일성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



다. 그후 그는 유타 대학에 입학하였고 졸업식에서는 고별사를 읽었습니다. 부친은 아이다호 렉스버그 학교의 교장이 되었으며 거기서 교사로서 일했던 나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고 부친은 교직을 떠나 법과 대학으로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친은 매우 일에 몰두하시는 분이었으나 피로를 푸는 방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낚시나 산책이나 로간 협곡으로 공놀이를 하러

어머니의 가족이 이곳에 먼저 오셨으며 부친이 18년간 감독으로, 20년간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하실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께 커다란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나에게는 위대한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수년간 초등학교 회장으로서 일하셨던 존슨 자매님을 기억합니다. 그 자매님은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은 콜 자매입니다. 그분은 매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매님이 탐색대(초등협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반)와 함께 기꺼이 하이킹을 갔던 것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보물 찾기를 계획했는데 그것은 통상적인 보물 찾기와는 좀 달랐습니다. 각 물건은 공파의 일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물건을 발견할 때 그것은 공파의 다른 일면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훌륭한 상이 준



꿈한 솜씨로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 91세입니다. 나는 이 위대하신 교사님의 친절에 대해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페리 장로의 가족에 대한 다음의 대화로 끝을 맺었습니다. “나에게는 손자가 있는데 손자 둘은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으며 다른 둘은 동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번씩 이곳에 살고 있는 손자들과 가정의 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매님이 어린 소년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 하였던 믿을 수 없을 만큼 창조적인 방법에 경탄했습니다.

“콜 자매님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나는 그 자매님의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콜 자매님이 나를 위해 마련 하신 선물을 가져 오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자매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누비 이불을 내 사무실로 가져 왔습니다. 꿈

의 가족 활동의 하나는 우리가 공터에 만든 소채원 가꾸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페리 가족 복지 농장이라고 부릅니다. 두 손자는 모두 지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주고, 관개 시설을 하고, 거 두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주님의 보상의 법칙 즉 우리가 부지런하면 풍족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조그만 하나의 씨앗이 수백 배의 수확을 가져다 줍니다.”

✱

